

		<b>보 도 자 료</b>		 
		<b>배포 일시</b>	2021. 6. 25.(금) 총 4매(본문 2, 참고 2)	
<b>담당 부서</b>	항만투자협력과	<b>담당 자</b>	• 과장 송종준, 사무관 장병철, 주무관 윤성환 • ☎ (044) 200-5960, 5969, 5967	
<b>보 도 일 시</b>		2021년 6월 28일(월) <b>석간</b>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28.(월) 06:00 이후 보도 가능		

## **평택·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착공** **-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 최초 착공, 2조 4천억 원 파급효과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민간개발·분양방식 최초로 ‘평택·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6월 28일(월) 착공한다고 밝혔다.

\* 사업시행자 ‘(주)경기평택글로벌’ 출자자(7) 현황 : (주)GS글로벌 45%, 왈레니우스윌헬름센솔루션즈 사우스코리아(주) 10%, 경기평택항만공사 5%, (주)신화로직스 5%, 쏘나브이피씨 코리아(주) 5%, GS건설(주)25%, 원광건설(주) 5%

※ **항만배후단지** : 분업화 추세에 따라 항만을 단순물류거점에서 조립·가공·제조가 가미된 복합물류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간으로, 1종과 2종으로 구분(항만법 제45조)

- (1종) 항만의 부가가치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화물의 조립·가공·제조 시설 및 물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항만배후단지
- (2종)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항만배후단지

그동안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정부와 항만공사에서 배후단지를 개발한 후 토지를 민간에게 임대하는 공공개발·임대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방식은 민간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만배후단지에 대규모 제조·물류시설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내외 제조·물류기업 등 실사용자 중심으로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2016년 12월에 「항만법」을 개정하여 민간이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민간개발·분양방식은 정부입장에서는 재정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와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에 소요되는 행정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공공개발 방식에 비해 보다 신속하게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민간에서는 토지의 사적소유가 가능함에 따라 임대기간 연장 및 토지 사용 후 원상복구 등의 임차계약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배후단지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평택·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민간개발·분양방식 도입 이후 전국 최초로 착공하는 사업으로, 정부 재정지원금 없이 민간자본 2,128억 원을 2021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4년에 걸쳐 투입하여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711천㎡, 업무·편의시설 105천㎡, 공공시설 319천㎡ 등 총 1,135천㎡ 규모의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2-1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완료되면 민간기업 건설 및 물류·제조시설 건설 등을 통해 약 6천 5백여 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되고, 2조 4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출처: 1종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수립 보고서(2016. 12. 해양수산부)

송중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이번 사업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민간개발·분양방식을 도입한 후 처음으로 착공하는 사업으로서 그 의미가 크며, 이를 시작으로 올해 10월 인천신항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민간개발·분양방식의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항만을 중심으로 물류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 사업목적

- 민자유치를 통해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민간의 창의성 등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물류·제조산업을 유치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준설토 투기장 일원(평택·당진항 21단계)
- (사업규모)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1,135천m<sup>2</sup>(약 285천평)
- (사업방식)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방식으로 사업추진
- (공사기간) ‘21. 6. ~ ‘25. 6.(총 48개월간, 1단계 24개월, 2단계 27개월)
- (총투자비) 2,128억 원(민간사업비 2,128억 원, 재정지원금 없음)
- (토지이용계획) 복합물류시설(711천m<sup>2</sup>), 업무편의시설(105천m<sup>2</sup>), 공공시설(319천m<sup>2</sup>)

## □ 추진현황 및 계획

- (‘16. 1.22)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사업계획 공고(평택, 인천)
- (‘17. 4.24) 실시협약 체결(해양수산부↔가칭 평택글로벌 주식회사)
- (‘20.12.29) 실시계획 승인(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평면도>





## 참고 2

## 전체 조감도

